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4월 1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정보통신정책과 김정환 과장, 송주호 서기관(4803), 김태희 사무관(4805)	

잘만 가르쳐도 IT일자리 3만개 창출

– 지경부, 4.14일 IT정책자문단 회의에서 「대학 IT교육 개선방안」 발표 –

□ **대학에서 쓸 만한 인재가 배출**되면 **IT일자리**가 **향후 5년간 최대 3만3천 개가 창출**된다.

o 더 채용하고 싶어도 적절한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**IT분야의 대졸 빈 일자리만 4만6천 개다.**

o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, 빈 일자리 중에 직접적으로 **1만7천 개의 일자리가 대학교육 개선으로 충원**될 수 있다. 또한, 좋은 인재의 공급으로 **IT산업 성장률이 1% 추가 상승**하면 간접적으로 **일자리 1만6천 개가 신규 창출**될 수 있다.

□ 이에, 이르면 **금년 하반기부터 대학의 IT교육 시스템이 크게 바뀌게 된다.** 먼저, **교과과정이 내실화**되어 **전공·기초과학 비중이 늘어**나고, **産學프로젝트·인턴십이 필수과목**으로 된다.

o 졸업생의 실무역량을 알려주는 가칭 「**IT역량평가시험**」이 **도입**되고, 대학평가기관에서 **IT분야에 특화된 대학평가를 별도 실시**하여 각 대학의 IT교육 수준도 공개된다.

o **공급 과잉 분야의 IT학과**는 **新산업 수요에 맞춰 개편·전환**되도록 유도된다.

o 가칭 「**서울어코드 클럽**」이라는 **産學협력체**가 만들어져 **대학교육 개선에 기업이 동참**하고, **내실 있는 교육**을 받은 **졸업생은 채용시 가점**이 부여된다.

□ 지식경제부는 **최중경 장관 주재**로, **14일**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**IT정책자문단 회의**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「**대학 IT교육 개선방안**」을 **발표**했다.

o **서울과학기술대 노준형 총장**을 비롯한 **産學硏 전문가 21명이 참석**했으며, **전자신문 구원모 대표이사,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설정선 부회장, 한국여성벤처협회 최정숙 회장, 코오롱글루텍 박성미 기술연구소장** 등 4명이 **새로운 자문위원**으로 위촉됐다.

□ **최중경 장관**은 '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**청년 고용의 질적 불일치**(mismatch)**만 해소**돼도 **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**'며, **대학의 교육 개선을 강조**했다.

o 그리고 **교육 문제**는 대학뿐 아니라 기업, 정부, 언론 등 **사회 전반과 연결**되어 그 **해결이 쉽지 않으므로,**

- 대학이나 기업의 어느 한쪽이 아닌, **우리 학생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려는 접근이 필요**하다고 덧붙였다.

- 즉, '쓸 만한 인재가 없다', '기업 투자가 적다' 라고 각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**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**을, **대학은 우수한 교육여건 마련**을 **먼저 고민해야** 한다는 것이다.

□ 지경부는 IT산업의 혁신원천이 HW에서 SW·콘텐츠로 이동함에 따라 **융합형 고급 인재양성이 필요**하다는 판단 하에,

o 작년 'IT인력양성 중기 개편방안(10.2월)'을 마련해 학부 지원사업을 축소하고 **대학원 지원사업을 확대**했다.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일명 **'한국판 MIT미디어랩'** 조성과 **'SW마에스트로'** 사업도 **추진 중**이다.

o 그러나 **IT분야 구인·구직난이 지속**되고 그 **원인이 산업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**에 있다고 판단되어, 지경부는 금번에 **대학 IT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**했다.

□ **「대학 IT교육 개선방안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**

〈 대학 IT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〉

① 지난 10여 년간 우리 대학들이 IT관련 학과와 전공을 무분별하게 신설하면서 **IT전문인력**(전문학사 이상)**은 향후 5년간**('10~'14) **약 3만명이 공급 과잉**될 전망이다.

o 학력별로 보면 **학사**는 약 **1만5천명이 과잉**인 반면, **석박사는** 약 **1천9백명이 부족**하다. 분야별로 보면 **SW**는 약 **8천명이 부족**한 반면, **HW는** 약 **2만4천명이 남는 상황**이다.

② **대학 교육**은 **전공 소홀**로 **기초 실력이 약한 졸업생을 배출**하고 있으며, **교과과정**도 **산업수요 반영 수준**이 **낮은 실정**이다.

o **졸업 이수 학점 중에 전공과목 비중이 50% 수준**으로 해외 대학에 비해 전공 비중이 크게 떨어지며*, 수학·과학 등 **기초과목의 이수 비율도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수준**(21.4%)**의 약 3분의 1**(6.2%)에 머무르고 있다.

* 전공 비중 : 한국(A대학) 50%이내, 핀란드(울루공대) 64%, 스웨덴(왕립 ICT대) 83%

o 산업수요 반영을 위해 **미국·유럽·인도의 대학들은 인턴쉽이나 캡스톤 프로젝트**(실습 프로그램)**를 필수로 운영**하고 있으나, **우리나라**는 **산학협력 프로젝트**를 **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**하고 있어 학생들의 실무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.

o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**미국의 공대는 6년 이내의 졸업률이 실제로 50% 수준**이지만, **우리나라**는 졸업 학점이 감소하는 등 **느슨한 졸업요건**으로 **공대생의 99%가 4년 내에 졸업**한다.

③ 대학의 **교수평가제도**와 외부기관의 **대학평가제도**가 **연구실적에 편중**되어 대학의 **교육기능이 약화**되고 있다.

o 연구·교육·봉사를 골고루 평가토록 교수평가제도가 갖춰졌으나, 실제로는 **SCI 논문 등 연구업적**이 **교수의 재임용·승진을 결정**하고 있어, **교수들은** 교재개발, 수업준비 등 교육활동보다는 **논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**하고 있다.

o 또한, **대학평가제도의 평가지표 중 연구비중이 60% 이상**을 차지하고 있어 **대학도** 교육품질 개선보다는 **연구실적 산출에 자원을 집중**하고 있다.

④ 고용시장에 **졸업생의 실력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다**보니, 기업의 **신입직원 기피**나 소위 **스펙 채용이 지속**되고 있다.

o **현재 40여 종의 IT관련 자격증**이 존재하나, 졸업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**변별력이 없어,**

o **기업**에서는 신입사원보다 **경력직 채용을 선호**하고 있으며, **채용문화**도 실력보다는 소위 **스펙**(출신대학, 영어성적 등)**에 의존**하고 있다.

〈 대학 IT교육의 개선방안 〉

① 新IT교육모델 마련 및 확산

o **전공과목 비중 확대**, **인턴십 필수 교과목화**, 졸업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**'新IT교과과정 표준안'**이 **오는 6월에 마련**된다.

- (전공·기초역량)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으로 확대, 전공과목 비율 60% 이상으로 상향 조정, 수학·과학 비율도 20% 이상으로 조정

- (실무역량) 産學프로젝트, 인턴십 등의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필수 교과목으로 전환

- (수업방식) 강의 시간이 토론·문제해결 수업에 활용되도록 e-러닝, 오픈코스웨어*(OCW: Open Course Ware) 등을 적극 도입

  * OCW(Open Course Ware) : 녹화된 수업을 활용하여 동일 강좌의 반복적 개설을 지양하고 학생지도에 집중

o **대학이 新IT교과과정을 채택**하면 **「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」**을 통해 **학과당 年6억원을 7년간 지원**받아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다.

- **컴퓨터·정보기술** 분야는 **금년에 13개 대학이 지원**되고, **전기·전자·통신** 분야는 **'12년부터 지원**될 예정

◇ **서울어코드** : 컴퓨터·정보기술 등 IT분야 공학교육인증(CAC :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)의 국제적 등가성을 보장하는 국제협의체

– 우리나라 주도로 '08년 12월에 출범하였으며,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, 영국, 호주, 캐나다, 일본, 대만, 홍콩 등 8개국 가입

◇ **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** : IT분야 공학교육인증을 대학에 보급하여 대학의 IT교육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직무역량이 검증된 IT인재를 양성·배출

o 대학의 교육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**교수평가제도의 개선이 추진**되고, **교수의 전공지식 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**된다.

- (교수평가제도) **대학이 교육 및 산학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수평가제도를 개선**하면 **지경부 인력양성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**되는 방안이 **연내 마련**되어 **'11년 부터 적용**될 예정. 또한, 해당 개선안이 **교과부의 대학 재정지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** 교과부와 협의를 진행

- (전공지식 함양 지원) **교수가 방학 기간을 활용**하여 IT분야 **최근 지식과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그램**이 **연내 마련**되어 **'11년 말부터 시행**될 예정

② IT역량평가시험 도입

o 대학 졸업생의 역량을 제대로 측정해 주는 가칭 **「IT역량평가시험」**이 **금년 하반기에 마련**되고 **시범 테스트도 실시**된다.

- 알고리즘 등 전공지식뿐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측정해 점수로 보여주는, **토플·토익 같은 시험**으로 **오는 9월에 설계 완료**

- **「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」**에 **참여하는 학생을 대상**으로 **연말에 시범 테스트**할 예정

o 해당 시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**IT서비스·SW기업 중심으로** TF를 구성하여 **문제를 출제**하고 그 **시험 결과가 기업 채용 시 가산점 형태 등으로 반영**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.

③ 대학평가제도 보완

o **IT분야에 특화된 대학평가제 도입**이 추진되어, 이르면 **'12년부터 각 대학의 IT교육 수준이 공개**된다.

- 대학평가기관, 한국공학교육인증원, IT관련 학회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**IT분야 대학평가제를 연내에 마련**할 예정

o 또한, 강의평가·인턴십 등 **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**를 **대학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안**도 **대학평가기관과 협의하여** 금년부터 **추진할 예정**이다.

④ IT학과 구조개편

o 대학이 원하는 경우, **기존의 IT학과**를 시스템반도체, 3D, 원자력IT 등과 같은 **새로운 학과로 개편**하거나 **전환하는 것이 쉬워**진다.

- **신성장인력 수급전망 정보제공**을 통해 **관련 학과(부) 신설을 유도**하고 지역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**특성화 전공을 개설**할 수 있도록 **학과 전환에 따른 초기비용을 지원**할 계획

- 학과 구조개편은 **교과부의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과 연계**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**교과부와 협의할** 예정

⑤ 초중등 IT교육 강화

o '08년에 폐지되었던 **초중등 컴퓨터교육 의무화**를 **다시 부활**시키는 방안을 **검토할 예정**이며,

o **IT과목**을 **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 포함**시키는 방안의 **검토**도 **추후 교과부와 협의**할 예정이다.

⑥ 기업의 교육참여 확대

o 주요 IT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가칭 **「서울어코드 클럽」**이 **금년 하반기에 설립**된다.

- 서울어코드 클럽을 통해 기업의 인재상 공유, 기업이 원하는 공학교육 인증기준 제시, 기업의 인증활동 참여 등이 이뤄질 예정

- 참여 기업은 **「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」**에 **참여하는 학생**들을 대상으로 **채용시 가산점을 부여**하여 대학교육 개선에 동참

o **우수 IT인재가 중소·중견기업에 많이 공급**될 수 있도록 인턴쉽과 채용을 연계하는 등의 **정부지원 사업이 확대될 예정**이다.

- **'IT멘토링 사업'**을 통해 학생들의 **기업현장연수 기회가 확대**되고, **SW, 정보보안 분야에서** 중소·중견기업의 **고용계약형 학과에 대한 지원도 확대**

□ **지경부**는 전공비중 확대, 인턴쉽 필수과목화 등 **新IT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**하여 **금년 6월부터 보급**하고, IT인력양성사업 참여시 **대학에 가점을 주는 방식**으로 **교수평가제도 개선을 유도**할 방침이다.

○ **IT**학과개편 등 **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**은 **교과부 등 해당 부처와 협의** 후, 지경부가 현재 수립 중인 **「산업인력양성 대책」에 포함시켜 확정할** 계획이다.

<붙임> 「대학 IT교육 개선방안」